

수확철 덮친 가을장마·태풍...농가 시름

광주·전남 주말까지 오락가락 비 13호 태풍 '링링' 주말 목포 관동 추석 출하 앞두고 과수농가 등 비상

추석을 앞두고 긴 가을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예고되면서 수확철을 앞둔 광주·전남 지역 과수원 등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50~100mm, 남해안 일부 지역은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주말까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동쪽 560km 해상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께 목포 앞바다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과수 농가 등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링링'이 대만 동쪽 바다, 중국 남부 동쪽 바다를 거쳐 금요일인 6일 오후 3시께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부근 바다를 지나 토요일인 7일 오전 9시께 목포 서쪽 110km 부근 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에서 제출한 '링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태풍은 현재 시속 33km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100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8m로 소형 태풍에 속한다. 강풍반경은 210km다. 목포에 접근할 무렵에는 지금보다 크고 강한 태풍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태풍이 예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목포를 비롯한 광주·전남이 태풍의 영향력이 큰 오른쪽에 위치한 탓에 수확을 앞두고 과수농가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

려된다.

이에 따라 기상청과 전남도는 수확기를 맞은 과수농가 등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추석을 열흘여 앞둔 현재 전남지역 각 산지마다 사과·배·포도 등 과일 수확이 한창이다. 하지만 수확기와 맞물려 주말까지 일주일 내내 비가 계속되고, 태풍의 직접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품성 저하와 낙과 피해 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일 당도는 수확기 일조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날씨가 궂으면 당을 축적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져 수확한 과일은 단맛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기술원 설명이다. 올해 7월 수확시기를 맞은 복숭아와 무화과의 작황(지난해 60~70% 수준)이 좋지 않고 당도가 떨어진 탓에 수확 시기에 제법 많은 장맛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7월 기준으로 올해 광주와 전남지역 강우량은 지난해 90.8mm의 3배 이상인 276mm를 기록했다.

또 과일 상품성을 좌우하는 착색 또한 일조량이 줄면 고르지 않거나 더러질 수 있다. 토양에 수분이 많으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할 능력이 약해져 과실을 맺기가 힘들거나 열매가 떨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을철 장기간 내리는 비는 과일뿐만 아니라 햇살 아래에서 영그는 벼 등 모든 작물에 나쁜 영향을 준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수확 철에 잦은 비와 약한 햇살 때문에 과수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한 태풍의 바람까지 겹치면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으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을 서두르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캠페인. 추석은 10여일 앞둔 2일 광주시 양동시장에서 서구청 경제과 직원들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가격·원산지 표시제, 바가지요금 근절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돌봄교실 과일간식 용기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교체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를 이달부터 생분해 플라스틱(PLA)으로 전량 교체한다"고 밝혔다.

PLA는 옥수수에서 녹말을 분리한 후 포도당을 발효해 젖산을 응축해 만든 친환경 수지다.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등 인체·환경 유해물질이 없고, 미생물에 의해 6개월에서 1년 사이 100% 자연 분해되는 장점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과일간식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남구, 다문화가족 미리 만나는 추석 한마당

오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주시 남구가 추석을 앞두고 다문화가족과 장애인들을 위해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

남구는 "3일 오후 1시부터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층 대강당에서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더하는 다문화가족 추석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가족 150여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삼색송편과 인절미, 강정 만들기 체험을 하고, 전통의

상인 한복을 차려 입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포토타임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남구는 각국의 전통 의상 입어보기를 비롯한 투호 및 제기차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석맞이 '나도 가수다' 노래자랑 행사도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는 지난 30일 펼쳐진 노래사랑에서 예선을 통과한 장애인 15명이 노래 실력과 함께 숨겨둔 장기를 뽐낼 예정이다.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공원공단 가을철 독버섯·뱀·벌 주의보

국립공원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을 할 때 독성을 가진 동식물을 조심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가을철은 야생버섯이 많이 나는 계절로 야생버섯 중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화경버섯·붉은사슴뿔버섯 등과 같은 맹독버섯이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들 버섯을 먹으면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벌초나 등산, 야영 등을 할 때 반바지·반소매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 사용하면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까치살모사·쇠살모사·유혈독이 등 4종이다. 뱀에 물린 뒤 뱀의 혈액이 순환이 잘 돼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으므로, 상처 부위를 헹글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한 뒤 3~4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공단은 당부했다.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은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6 달뜨기 10:08
해질 18:58 달질 21:43

가을비

장제전선 상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흐리고 비오겠다.

광주	비	21/26	보성	비	20/26
목포	비	22/26	순천	비	21/27
여수	비	22/26	영광	비	21/26
나주	비	21/26	진도	비	21/26
완도	비	22/26	전주	비	21/26
구례	비	21/26	군산	비	21/25
강진	비	21/26	남원	비	20/25
해남	비	21/26	혁신도	비	21/24
장성	비	20/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	동~남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동~남동	1.0~2.0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위험)
- 보통: 자외선 (보통)
- 좋음: 미세먼지 (좋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59 22:17
여수	05:23 17:46	--:--

◇주간 날씨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	☁	☁	☁	☁	☀	☀
22/26	22/28	22/28	22/28	21/29	21/30	22/30

광주 남암학원 2기 임시이사 체제 공식 출범

교직원 채용 비리로 관선 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남암학원(동아여중·고)의 2기 임시이사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 임기의 남암학원 2기 임시 이사 8명을 신규 선임했다. 새 이사는 김영남 전 광주시의회의원(전 교육문화위원), 김성영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고익중 전 광주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교장,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송지현 변호사, 최민정 학부모, 김영임 빛고을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 나인한 전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다.

이사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6일 첫 회의를 열어 이사장을 선출하고 활동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남암학원은 2016년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실장 등 3명이 구속됐고, 부정하게 채용된 교사 6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같은 해 9월 사학분쟁조정위는 학교정상화를 위해 1기 임시 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이사진을 파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2022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단순화...명칭도 표준화

현재 고교 1학년에서 적용되는 2022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이 현재보다 단순해질 전망이다. 만학도와 재직자 등을 위한 별도 전형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2022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학생선발 때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 실기, 서류 등 5개 핵심 전형 요소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 결합은 2개 이내로 선택하

도록 해 전형 방법 수를 줄였다. 2022학년도 기본사항에서 선택 가능한 전형 수도 직전 2021학년도 107개에 비해 57개로 46.7% 축소된다.

또 평생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 특성을 고려해 만학도와 성인재직자,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대상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사회·지역 배려자, 전직자, 경력단절자 등을 위한 별도 전형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특별 "특별분양"

- 높은 전용면적 75%
- 11,12층 천정고 6M
- 분양가 470만원 ~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화이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